

코드전환 형식 유형 연구

— 대만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중의 국어와 민남어 간 코드전환 용례를 위주로

염재웅*

— 목 차 —

1. 서론
2. “진술” 유형
3. “역할전환” 유형
 - 1) 실제 발화에 의한 역할전환
 - 2) 발화 추정에 의한 역할전환
 - 3) 불완전한 역할전환
4. “질문·대답” 유형
 - 1) 질문
 - 2) 질의응답
 - 3) 자문자답
5. “코드 동화” 유형
6. 기타 유형
 - 1) 비유
 - 2) 과장
 - 3) 발화사
 - 4) 민남어 속담
 - 5) 국어 신조어
7. 결론

국문초록

대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국어 코드와 민남어 코드가 통용되고 있다. 두 코드가 수시로 상호 전환되어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국어와 민남어 코드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어떤 발화형태로 코드가 전환되는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가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진술”은 일상생활의 발화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역할전환”은 발화자가 마치 1인 2역의 복화술을 하는 것처럼 코드전환을 활용하는 것이다. “역할전환” 형식의 코드전환 시, 국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 민남어 코드를 사용하여 서술하고, 민진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어 코드로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대답”의 상황에서는 “질문”, “질의응답”, “자문자답” 등의 코드전환 용례가 있다. “코드 동화”란, 앞의 발화자가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고 나서, 뒤의 발화자도 앞의 발화자의 영향으로 민남어 코드로 전환해서 계속 민남어 코드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가리킨다. 기타 유형에서 “비유”는 직유와 은유의 상황에서 민남어로 코드 전환되는 경우이며, 이 밖에도 “과장”, “발화사”, “민남어 속담”, “국어 신조어” 용례를 발굴하였다. 대만의 시사토론 프로그램(<鄭知道了>)에 나타난 다양한 코드전환 형식의 출현 회수의 통계를 보면, “진술”이 129회로 가장 많았고, “역할전환”이 91회로 두 번째로 많았다. “코드 동화”, “질문·대답”, “비유”의 출현횟수도 20회를 넘었다. 이 가운데 “진술”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일반적인 발화에서도 “진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역할전환”의 출현횟수가 91회에 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코드로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해서 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코드전환형식, 대만 시사토론 프로그램, 역할전환, 국어, 민남어

1. 서론

언어학에서의 코드(code)는 언어체계가 다른 별개의 언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언어체계 내의 변이형도 개별적인 언어 코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중국어는 별개의 언어 코드라는 것에는 전혀 이견이 없지만, 한국어라는 독립적인 언어 코드 내에서도 서울 방언과 제주도 방언이 별개의 언어 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만에는 크게 4종류¹⁾의 언어 코드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국어 코드²⁾와 민남어 코드는 대만에서 가장 사용 빈도

1) 國語(표준 중국어), 閩南語(민남어), 客家語(객가어), 原住民語(원주민어)

2) 본 논문에서의 “국어(國語)”라는 용어는 “표준중국어” 또는 “보통화(普通話)”를 가리킨다. 1923년에 표준어 제정방안을 논의했던 회의가 “중화민국 교육부 국어통일주비회(中華民國教育部國語統一籌備會)”였던 전통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대만에서는 “표준중국어”에 대해 “국어(國語)”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나오는 모든 “국어(國語)

가 높은 언어 코드로서 일상생활에서만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에서도 빈번하게 혼용되고 있으며, 대만 정치 현안에 관해 패널들이 다양한 견해를 들려주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 두 개의 언어 코드가 빈번하게 발화된다.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언어 코드가 혼용되는 순간에 코드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코드전환(Code-switching)”이라고 한다.

코드전환이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서 游汝傑·鄒嘉彥(2011:111-1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장소 전환에 따른 코드전환: 예를 들어, 회의 중에는 표준 중국어로 발언하다가, 회의 중간 쉬는 시간에 방언으로 수다를 떠다. …… 2. 역할 관계 제약 코드전환: 담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상급자라면, 다른 한 사람은 상대방의 코드전환에 복종해야 한다. …… 3. 이중언어 숙련도 차이의 제약에 따른 코드전환: 이중언어 구사자가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모어를 더 숙련되게 사용한다. …… 4. 언어 정감 제약에 따른 코드전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 방언에 대해 특수한 감정을 갖는다. …… 5. 코드전환을 이용하여 비밀 보장의 목표 달성: …… 6. 코드전환을 이용하여 신분을 상승시킴: 언어는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 그룹 내의 상층 언어 또는 최고층 언어는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³⁾ 이와 같은 코드전환의 형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코드전환 발생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고의 연구 대상인 시사토론 프로그램 중에는 토론 참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코드전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단히 치밀한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따라서 위의 설명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코드”라는 용어는 대만에서 상용되는 “표준중국어 코드”를 가리키며, “민남어(閩南語 코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3) 1. 場景轉換引起語碼轉換。例如開會時用普通話發言，會議中間休息時用方言聊天。…… 2. 角色關係制約語碼轉換。談話中的一方如果是尊長(上級、長輩、教師)，另一方往往要服從對方的語碼轉換。…… 3. 雙語熟練程度不等制約語碼轉換。雙語人當需要表達個人的思想感情的時候，一般是使用母語更熟練。…… 4. 語言情結制約語碼轉換。一般人對故鄉的方言帶有特殊的感情。…… 5. 利用語碼轉換達到保密目的。…… 6. 利用語碼轉換來抬高身分。語言是一種資源，在同一個言語社區裡高層語言或頂層語言更是一種能表現身分的重要資源。……

예를 들어, “2. 역할 관계 제약 코드전환”에서 “담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상급자라면, 다른 한 사람은 상대방의 코드전환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는데,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역할 관계를 설정한 코드전환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시사토론이라는 상황이 상급자와 하급자가 담화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형태로 코드전환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친민진당 성향의 토론자가 특정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민진당과 국민당 정치인에 대해 논평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토론자가 우선 민진당 정치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민진당을 대표하는 언어 코드인 민남어 코드만 사용한다거나, 국민당 정치인에 대해 논평할 때 국어 코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당 정치인의 견해에 반대하는 토론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국민당 정치인에 관한 발화를 할 때는 민남어 코드로 발화하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때는 국어 코드로 발화하는 상황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만의 국어 코드와 민남어 코드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어떤 발화형태 또는 언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코드전환 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국어와 민남어의 코드전환 용례는 대만의 시사토론 프로그램(〈鄭知道了〉)의 2019년12월11일부터 2019년12월27일까지 13회분의 영상 자료와 이를 직접 전사한 자료를 기초로 연구를 진행했다.⁴⁾ 이 자료에 출현한 다양한 코드전환의 발화 내용을 수집하고, 언어학적으로 유의미한 코드전환 유형이라고 판단되는 용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관련된 정치 상황과 그에 따른 코드전환의 의미를 해설하였다.

2장에서 6장까지의 각 장에서는 “진술” 유형, “역할전환” 유형, “질문·대답” 유형, “코드 동화” 유형, 기타 유형(비유, 과장, 발화사, 민남어 속담, 국어

4) 본 논문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鄭知道了〉)에 나타난 코드전환을 주요 연구자료로 삼은 이유는,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코드전환 용례들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전사한 분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만에서의 국어 코드와 민남어 코드전환의 전모를 밝힐 수 없겠지만, 대만 화자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코드전환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조어)의 순서로 서술하였다.

2. “진술” 유형

“진술(陳述)”이란, 어떤 일이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의미이다.⁵⁾ “진술”은 일상생활의 발화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인 대만의 국어와 민남어 간의 코드전환 상황에서 도 “진술” 유형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대만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진술” 유형의 코드전환의 예를 들고, 해당 발화가 나타난 배경과 발화 상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鄭01/13:16]⁶⁾

陳瓊華：事實上就是說那個，整個政治獻金就募了上億，這已經在高雄市這種街頭巷尾這樣傳。傳的很難聽啊，這一個市長有需要做成這樣，讓你自己的市民把你講的這麼難聽。⁷⁾然後接下來縣市評比，不要說那個天下雜誌評比，不是五六部最後一名哦，是二十二縣市最後一名。(사실상 말하자면 그건 모든 정치현금을 수억원 모금했다는 것이죠. 이런 소문은 이미 가오슝시의 저갯거리에서 퍼지고 있어요. 전해지는 내용이 매우 듣기 좋지 않은데, 이 시장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시장 당신 자신의 시민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듣기 안좋은 소리를 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천하잡지>의 평가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시도단위 평가에서, 5~6

5) 중국어 문법에서 “진술구(陳述句)”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평서문(平敘文)”에 해당한다.

6) 이 표시([鄭01/13:16])는 <鄭知道了>라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2019년12월11일부터 동년동월 27일까지 방영분에 대한 스크립트의 약호이다. “鄭01”은 <鄭知道了> 2019년12월11일에 방영된 첫 번째 방영분을 가리키고, [13:16]은 방송이 시작되고 “13분16초”에 해당 발화가 시작된 시점을 가리킨다

7) 본 논문의 전사 내용에서 “국어 코드”로 발화하다가 부분적으로 “민남어 코드”로 전환된 부분에는 “진하게”, “기울임”, “밑줄”로 표시하였다. 또한 “민남어 코드”로 발화한 부분은 민남어로 표기해야 하나, 민남어라는 방언을 한자로 표기 방법이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고 독자들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본 논문 중의 “민남어 코드”에 대한 표기는 해당 프로그램의 자막에 표기된 “국어 코드”를 사용하였다.

개 부서 평가 꼴찌를 했고 22개 현과 시에서 꼴찌를 했어요.)

해당 화자(陳瓊華)는 민진당 출신이 가오슝(高雄)시 시장(陳菊) 시절에 가오슝시 국제처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후임 한귀위(韓國瑜) 가오슝시장이 국민당 총통 후보로 총통 선거에 출마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한귀위 시장에 대한 가오슝 시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전하면서 “진술” 형식으로 민남어 코드를 사용하여 발화하고 있다.

[鄭03/24:45]

呂惠敏：我們因為用民主選舉投票的方式，我們用不流血的狀態就可以改變政權。你覺得民進黨在高雄執政太久，你要換人做那就換人做。可是你如果現在覺得韓國瑜的 市長的位置還沒坐熱，就想要來選總統，不想要支持他。我們也是可以用選票來決定，有沒有可能發生高雄事件？(우리는 민주적인 선거 투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민진당이 가오슝에서 너무 오래 집권했고, 당신이 시장을 바꿔야한다고 해서 시장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만약 지금 한귀위 시장이 없었던 시장 자리가 아직 따뜻해지기도 전에 총통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한귀위를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선거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으니 가오슝에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당 화자(呂惠敏)는 본 시사토론 프로그램(鄭知道了)의 사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프로그램이 친민진당 성향의 방송국(三立電視台)에서 제작되었다. 대만에서는 방송국에 따라 명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고, 해당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도 방송 중에 공공연하게 친민진당 성향의 발언을 한다. 위의 발화에서 국민당 소속의 한귀위(韓國瑜) 가오슝 시장이 가오슝 시민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비난과 한귀위 시장을 반대하는 한 청년과 교류한 에피소드를 “진술” 형식으로 민남어 코드로 설명하였다. 본 발화 내용에서 특이한 점은 한귀위와 어떤

청년 등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때는 오히려 민남어 코드를 사용하고, 발화자(呂惠敏)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발화할 때는 국어 코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대만의 국어 코드와 민남어 코드는 어떤 특정 코드가 특정한 정치집단의 전용 코드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역할전환” 유형

본 논문에서의 “역할전환”이란, 코드전환을 이용해서 발화자와 발화대상자, 또는 발화자와 제3자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부여하고 마치 각자가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활용하는 것을 “역할전환” 유형의 코드전환이라고 한다.

대만 민진당에서는 스스로를 대만 본토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국민당에 대해서는 외성인(外省人)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하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친민진당 성향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친민진당 성향의 패널은 자신들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 주로 민남어 코드를 사용하고, 국민당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주로 국어 코드 전환하여 발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실제 코드전환이 발생하는 발화 상황을 분석해보면, 역할전환 형식의 코드전환 시, 국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 민남어 코드를 사용하여 서술하거나 실제 발화한 내용인 것처럼 묘사하고, 민진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어 코드로 발화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1) 실제 발화에 의한 역할전환

[鄭01/9:42]

陳瓊華：他回答不出來啊，他對高雄是沒有想法的啊，喝個珍奶啊，就說啊 “我如果選總統選不上，我就來賣珍奶這樣。”他對高雄是沒有想法、沒有依戀的，然後現在上節目又把高雄說什麼，哎我怎麼樣可以讓那個明明就是個芝

麻, 總會一夜之間變公主。(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가오슝에 대해서 별생각이 없거든요. 밀크티나 마시면서 내가 만약 총통에 당선되지 않으면 나는 밀크티 장사를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는 가오슝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가오슝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분명히 참깨 같이 작은 도시이지만 언젠가는 하룻밤 사이에 공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발화자(陳瓊華)는 한귀위 가오슝 시장이 가오슝시에 대해 구상도 애정도 없으며 총통 선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당시 한귀위 시장이 바쁜 선거 일정 중에 어떤 밀크티 가게에 들렀을 때 했던 농담에 대해서는 마치 한귀위 시장이 직접 발언한 것처럼 한귀위 시장에 빙의한 듯이 인용했다. 이와 같이 타자의 발언을 마치 그 사람이 말하듯이 1인칭으로 발화한 부분을 민남어 코드로 전환했고, 이는 관중들에게 발화자의 발언에 더욱 현장감이 느껴지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鄭01/3:30]

鄭弘毅：我們首先要來看的就是這個韓市長啊，那韓市長他接受電視台訪問。他說他心中沒任何覺得對不起高雄市民的事，他說他過去一年的政績攤在陽光下，他做很多事。(우리가 우선 살펴볼 것은 이 한귀위 시장이, 그 한 시장이 그가 방송국과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는 그가 생각하기에 가오슝 시민들에게 어떠한 죄송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는 과거 1년간의 정치적 성과는 만천하에 드러나 있으며, 그는 아주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발화자(鄭弘毅)는 한귀위 가오슝 시장이 가오슝 시민들에 대해 미안함이 없으며 1년 동안의 가오슝 시장으로서의 정치적 업적도 뚜렷하다고 하는 발언을 간접 인용의 방법으로 발언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귀위 시장이 실제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남어 코드로 전환해서 현실감을 제고했다. 다만 발언 중간에 국어 코드로 잠시 전환된 부분(覺得對不起高雄市民的事/ 죄송할 만한 일)이 있는데, 이는 화자의 의도와 달리 민남어 코드로 전환되어야 할 부

분이 수의적으로 국어 코드로 전환된 것으로, 코드전환이 일정 부분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발화 추정에 의한 역할전환

이 역할전환은 “가상의 역할을 전제로 한 코드전환”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다. 각각의 화자가 실제로 발화한 내용을 직접 인용해서 진행하는 코드전환이 아니고, 일정한 상황 속에서 해당 화자가 했을 것으로 상상하면서 진행하는 발화 내용, 특정 상황을 설명하거나 가정한 발언, 또는 당사자가 처해있는 입장에 대한 설명할 때 발생하는 코드전환을 가리킨다.

[鄭07/62:30]

苦苓：那第二個就是說他心情不好，以為他那時候心裏在想可能說 回去怎麼跟李佳芬交代我怎麼會給人家600萬，7200萬的豪宅買我的名字買我韓國瑜的名字，結果我拿600萬給別人還瞞著她。這個我覺得他昨天不是被打臉臉腫而已，他膝蓋應該也很腫。(그 두 번째는 바로 한귀위의 심정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귀위는 그때 마음속으로는 귀가해서 아내에게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600만위안을 주게된 것인지, 7,200만위안짜리 호화저택을 본인 한귀위의 명의로 샀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600만위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아내를 속였는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일에 대해 나는 한귀위가 어제 단지 따귀를 맞아 얼굴이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릎도 부어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화자(苦苓)는 당시 한귀위 가오슝 시장이 예전에 10여년간 실업자 생활을 할 때, 어떤 여성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있다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갚게 된 일을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해 항간에서 제기되는 해당 여성과의 스캔설을 언급하며 한귀위가 가정을 등한시했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발화자는 한귀위 시장의 심정을 언급할 때, 마치 한귀위 본인으로 빙의하여 한귀위가 가지고 있었을 법한 생각을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여 설명했다.

발화자 본인은 처음에 국어 코드로 발언하다가, 한귀위의 입장으로 역할을 전환할 때 코드를 전환하여 발화자와 발화대상자의 역할이 분화되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생동감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3) 불완전한 역할전환

“불완전한 역할전환”이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특정한 하나의 언어 코드(주로 민남어 코드)가 일관되게 적용되다가 중간에 다른 코드(주로 국어 코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鄭04/68:20]

鍾年晃：我也覺得回防高雄這件事情，來的有點突兀，因為你如果仔細去回想，他從開始選總統到現在，他其實很少針對單一議題很正式地出來開記者會。大部分是，你看連這個什麼砂石、豪宅。他自己都沒有說過，都是叫發言人出來說，但是這件事情，韓國瑜是很正式地開記者會。(저도 한귀위가 가오슝에 돌아가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 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약 자세히 회상해보는다면，한귀위는 총통 선거에 뛰어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는 사실 단일한 의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연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당신이 보시면 무슨 건축자재 이권 문제, 호화주택 문제 같은 내용들이죠. 한귀위 본인이 얘기한 적이 없고, 모두 대변인을 시켜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한귀위는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발화자(鍾年晃)는 민진당 당적을 가진 언론인으로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민진당 지지 발언을 한다. 이 당시 한귀위 시장이 국민당 총통 후보자로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가오슝 시민들로부터 시장 당선 1년 만에 총통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인해 공격을 받게 된다. 위의 발화에서 가오슝으로 돌아가 “방어한다”는 발언은 바로 당시 시점에서의 한귀위 시장의 공공한 처지를 비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발화 내용 중에서 한귀위 시장을 2인칭 대명사(你) 또는 3인칭 대명사(他)로 언급하는 세 개의 문장이 있다.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는 발화대상(한귀위)의 발언을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여 발화자 본인(鍾年冕)의 발언과 차별화했다. 다만, 두 번째 문장에서 3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은 한귀위이지만, 앞뒤 두 문장과 달리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지 않았다. 발화 속도가 빠른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매 순간 빠른 전략적 판단을 통해 코드전환의 시점을 계산하고 유려한 말솜씨로 코드전환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모든 사람이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 배분에 의한 코드전환”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의 문제와 청자가 전달받는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의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위의 발화에서 발화자는 발화자 자신과 발화대상의 언어 코드를 분리함으로써 양측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발화자는 이 발언을 듣는 청중들이 발화자와 발화대상이 차별화된 두 개의 코드로 진행되는 발화를 듣고 발화의 생동감을 느끼는 극적(劇的)인 효과를 통해 발화자 자신의 발언이 청중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질문·대답” 유형

질문이나 대답을 할 때, 특정한 코드로 전환되어 발화되는 유형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 “두 사람 간의 질의응답”, “자문자답” 등 형태의 “질문·대답” 관련 용례가 발견되었다. 이때 질문의 대상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청자가 될 수도 있으며, 화자 스스로가 질문과 대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 질문

[鄭09/33:45]

康仁俊：所以把特偵組那時候成立有非常非常多他的因素，可是後來的~~差~~

樣, 我說真的, 是民進黨的問題嗎? 國民黨你自己也有問題, 大家都想說現在是我們的, 我也要來搞一下。大家可以搞, 爲什麼不搞。搞完之後怎麼沒有合我的意? 你辦對方辦這麼輕, 我就罵你。罵到最後, 弄也是你們在弄, 然後毀也是你們把它都給毀掉。(그래서 특별조사팀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에는 대단히 많은 한귀위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귀위가 나중에 도망가는 모습이라니, 제가 솔직하게 물을게요. 이게 정말 민진당의 문제인가요? 국민당 당신들도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지금은 우리들이 집권하니까 나도 한 번 권력을 휘둘러보자고 생각하죠.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왜 나라고 안 하는나는 것이죠. 권력을 휘두르고 나서는 어제서 내 뜻에 부합하지 않지? 네가(검찰이) 천취(陳菊)를 가볍게 사법처리 하니까 나는(한귀위는) 바로 너를(검찰을)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비난하더니 당신들 스스로 사법처리 하고, 스스로 그것을 망가뜨려 버렸죠.)

이 발화는 2019년 12월 국민당 소속의 한귀위 가오슝 시장은 민진당 소속의 천취 전임 시장이 본인의 임기 내에 가오슝시에 3,300억원의 부채를 지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특별조사팀에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의뢰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대만의 친민진당 성향의 언론인인 발화자(康仁俊)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때는 국어 코드로 발화하다가 한귀위 시장과 국민당을 비난하거나 한귀위 시장의 입장을 가정하여 발화하는 부분에서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여 “질문”의 형식으로 발화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한귀위 시장의 입장에서 발화할 때 마치 발화자 자신이 한귀위에 빙의된 것처럼 1인칭(我)로 발화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가정하여 몰입하며 발언할 때 코드전환을 사용하여 마치 서로 다른 화자가 말하고 있는 느낌을 주면서 시청자에게 생동감을 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질의응답

[鄭01/9:17]

鄭弘儀: 你會不會覺得他很敢這樣說?(당신은 한귀위 시장이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요?)

陳瓊華：我先回答剛剛弘毅哥你問那個H是什麼意思。H不只是毀滅，而且真的真的是英文的話就是Hurt，傷害，他真的就是傷害高雄，他很敢說。 (제가 먼저 사회자가 질문하신 H가 무슨 의미나냐는 문제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H는 훼손하고 멸망시킨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이잉원 총통에 대해서 Hurt, 즉 상해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귀위는 정말로 가오슝에게 상해를 입혔었죠. 그 사람은 정말로 감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발화는 사회자(鄭弘儀)가 질문하고 토론자(陳瓊華)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앞에서 한귀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이 취임 1년만에 총통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가오슝 시민의 민의를 저버린 처사라는 의견이 나왔고, 어떤 기자가 이렇게 가오슝을 떠나면 시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한 질문에 대해 한귀위 시장이 “미안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가 토론자에게 한귀위 시장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사람인지 물었고, 토론자는 한귀위는 가오슝시를 훼손하고 상해를 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하지 않다”는 말을 감히 할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바로 발화 부분에서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였다. 사회자가 민남어 코드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도 민남어 코드로 대답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질의응답 형태이고, 이때 질문자는 민남어 코드로 질문했고 답변자도 민남어 코드를 화답했다.

3) 자문자답

[鄭05/18:03]

王瑞德：我講一個最簡單的例子，錢亂花是怎麼花的？你就已經在沒錢了對不對？錢黑白開是按怎開的？你忘了嗎？一個光頭節50萬，有沒有？到底帶來什麼？不知道。(제가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돈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한귀위 당신은 잊었나요? 한 번의 광두절에서 50만위안을 쓴 적이 있었죠? 무슨 수익이 있었죠? 모릅니다.)

발화자(王瑞德)는 본 발화의 앞부분에서 한귀위 가오슝 시장이 가오슝 시

의 재정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한귀위는 민진당 출신의 전임 시장이 진 채무가 3,000억이라고 주장했지만, 발화자는 한귀위가 중앙정부에서 받은 충분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최근 진행한 “광두절(光頭節)” 행사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꼽으며 한귀위 시장을 비난한 것이다. 발화자는 이러한 주장을 “자문자답” 형식으로 민남어 코드로 전환해서 발언했다.

5. “코드 동화” 유형

“코드 동화”란. A라는 발화자가 국어 코드로 발화하다가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는 경우에, B라는 발화자가 A의 민남어 코드를 이어받아서 계속 민남어 코드로 발화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상황에 따라서는 두 사람 사이에 민남어 코드로 대화가 이어지면 상당히 긴 대화가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모든 대화 내용이 민남어 코드로 진행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에서 주로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鄭09/87:10]

鄭弘毅：你比較相信誰？(당신은 누구를 더 신뢰하세요?)

何博文：我說實在的，我當然是相信黃文財講的，因為黃文財跟他是好朋友，所以他們那個兄弟之間可能有一些故事，不想讓自己的。(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당연히 황원자이를 신뢰하죠. 황원자이가 한귀위 시장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한 친구 사이에는 아마도 일련의 사건이 있어서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鄭弘毅：這樣說起來李佳芬硬吞就是了。(이렇게 말씀하시니 한귀위 시장 부인 리자편이 꼭 참고 있는 것으로 보는게 맞겠군요)

何博文：我覺得是硬吞，否則我這樣舉例，舉例來講，當然這個尊重他的表達。(저도 리자편이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그렇지 않다면，당연히 이것은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위의 발화 내용은 한귀위 가오슝 시장과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인 황

원차이(黃文財)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시 대만 매스컴에서는 한귀위 시장의 스캔들이 터졌는데 황원차이가 이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위의 발화 내용에서 코드전환 상의 특징은 사회자(鄭弘毅)와 토론 패널(何博文)이 민남어 코드로 번갈아 주거나 받거나 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을 진행한 친민진당 성향의 시사토론 프로그램(<鄭知道了>)의 발화에는 위의 발화 내용처럼 두 명 이상의 발화자가 민남어 코드로 전환해서 주고받는 상당히 긴 대화 내용이 자주 나타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상황은 민남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화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친국민당 성향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보다는 친민진당 성향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친민진당 성향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토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정치적 성향상 대부분 母語가 민남어이거나 오랫동안 민남어와 국어를 겸용해왔기 때문에 국어와 민남어 코드의 전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6. 기타 유형

기타 유형에서는 출현 회수가 많지 않은 “비유”, “과장”, “발화사”, “민남어 속담”, “국어 신조어” 등이 있다. “비유”는 직유와 은유의 상황에서 민남어로 코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장”은 실제 상황을 부풀려 얘기하는 것을 말한다. “발화사”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你聽我說)”,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데(我跟你說)” 등의 상용어구가 자주 사용된다. 또한 “민남어 속담”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중국어의 속담과 달리, 오랜 민남의 언어와 문화가 반영된 민남어로 만들어진 속담을 가리킨다. 대만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많은 유행어와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유행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하나의 국어 신조어 용례가 발견되었다. 각각의 코드전환 형식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1) 비유

[鄭09/15:35]

康仁俊：老實講，今天的政見發表會，有一點類似像小型的辯論會，只是沒有雙方這樣子而已。可是大家都提問了，韓國瑜今天像是鬥犬。我不用鬥雞，鬥雞較不好聽，你知不知道？雖然他是屬雞的，但是他像是鬥犬，一想咬，一直咬你。(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정견발표회는 작은 총통 선거 토론회 같았는데, 다만 쌍방 간에 토론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모든 후보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한귀위는 오늘 마치 투견 같았습니다. 난 투계(싸움닭)은 필요없어요. 싸움닭이란 말은 좀 듣기 좋지 않은 표현인데, 알아요? 비록 한귀위도 답따이기는 하지만, 한귀위는 투견 같아요. 한번 물고 싶으면 계속 당신을 물죠)

이 발화는 당시 있었던 총통 후보 정견발표회에서 발생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민당 총통 후보였던 한귀위 가오슝 시장은 자신에게 배정된 정견 발표 시간이 남았는데도 다 소진하지 못했고, 오히려 현직 총통이었던 차이잉원 총통에게 공세를 퍼는데 집중했다. 발화자(康仁俊)는 한귀위를 싸움닭에 비유했으며, 이 부분에서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여 어감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다.

2) 과장

[鄭08/100:42]

徐佳青：不只是這樣子一事情，這個是最後一根稻草。你看一連串這麼多的歧視語言對不對？從副手亂講話、自己亂講話，然後黨主席亂講話，然後還有這些豬隊友亂講話，這樣林林總總加起來，已經可以出一本書了。(단지 이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최후의 지푸라기 하나일 뿐이죠. 연속적인 이렇게 많은 차별적인 언사를 당신이 좀 보세요. 부총통 후보부터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총통 후보 자신도 막말하고, 그 다음에 당주석도 함부로 발언했죠, 그 다음에는 지지자들이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발언들을 합치면 벌써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해도 됐을 겁니다.)

발화자는 전날 있었던 총통 후보 정견발표회에서 국민당 한귀위 총통 후보

와 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근거도 없는 주장을 너무 많이 쏟아내서 책 한권을 출판해도 될 정도로 많은 막말을 했다는 다소 과장된 주장을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여 강조했다.

3) 발화사

[鄭06/15:05]

王定宇：他又講一次高雄負債三千三百億，昨天人家友台張雅琴打臉一次了，大家都跟你講，你講錯了。(한귀위가 또 한 차례 가오슝 시가 3,300억 위안의 채무가 있다고 말했는데, 어제 친국민당 방송국의 뉴스 앵커 장야친이 반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 말했다고요.)

발화자(王定宇)는 당시 프로그램에서 출연하여 한귀위가 총통 후보로 나서면서 가오슝 시장으로서의 업적을 과장하고 전임 시장의 채무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 위의 발언 내용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말합니다”라는 표현만 민남어 코드로 전환되어 발화되었는데, 이 표현은 국어 코드의 “我跟你講”과 같은 형식의 표현은 상용되는 발화사이자 상투어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민남어에서도 자주 쓰여서 민남어를 모르는 사람도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을 정도이다. 위의 발화에서도 한귀위 시장의 발언이 틀렸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민남어 코드를 사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발화사로 사용되었다.

4) 민남어 속담

[鄭08/09:45]

許智傑：我覺得從去年到現在，真的是一場鬧劇。大家一開始，很多年輕人都會覺得說：他講了這個築夢，真的是讓很多年輕人很嚮往，北漂青年可以回來，說得的像一座山，說一畚箕做不到一湯匙。(제 생각에는 작

년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황당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모든 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귀위가 꿈을 건설하겠다는 말에 많은 청년들이 호응했고, 취업을 하기 위해 타이페이에서 떠도는 청년들도 가오슝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귀위는 산처럼 많은 말을 했지만, “쓰레받기 하나로 수저 하나도 못 만든다”라는 속담처럼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죠.)

발화자(許智傑)는 가오슝 시장 선거 당시 한귀위가 청년들에게 제시했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꿈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이 집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쓰레받기 하나로 수저 하나도 못 만든다”라는 민남어 속담을 민남어 코드로 발화하여 국민당의 한귀위 시장이 시정을 잘못 운영했음을 지적했으며,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상대방에 있는 민진당이 자주 사용하는 민남어 코드와 그 코드가 포함된 민남어 속담이 적절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국어 신조어

[鄭06/51:18]⁸⁾

何博文：第一個叫失格，第二個叫做什麼？沒料。所謂失格是說，你今天是中華民國的總統呢，你不是地方的代表會主席，就要這樣噴口水，互相誣蔑，不是呢。(첫번째는 격조를 잃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나? 내실이 없다는 것이다. 소위 격조를 잃었다는 것에 대해 말하면, 한귀위 당신은 중화민국의 총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지방 대표회의의 주석이 아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하교 서로 중상모략을 해선 안된다.)

위의 발화에서 나온 “噴口水”라는 어휘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침을 뱉는다”라는 의미로만 해석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 국어에서는 관용표현으로 어떤 이가 말할 때 핵심 내용이 없이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여 반감을 사는 경우에 이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여 격렬한 논쟁

8) 본 논문의 전사 내용에서 “민남어 코드”로 발화하다가 부분적으로 “국어 코드”로 전환된 부분에는 “진하게”, “기을임”, “물걸포시”로 표시하였다.

중에 상대방에게 인신공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심각한 논쟁 중에는 침이 튀는 경우가 많은 데서 파생된 의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위에서 발화된 문장을 살펴보면 “噴口水”, “誣蔑”와 같은 어휘는 민남어 코드에는 상응하는 표현이 없어서 민남어 코드로 발화되는 중간에 “噴口水”, “誣蔑”가 들어가야 할 부분에서만 국어 코드로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7. 결론

대만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어 코드와 민남어 코드가 통용되고 있다. 각각의 코드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두 코드가 수시로 상호 전환되어 코드전환이라는 방법으로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시사토론 프로그램(<鄭知道了>)에서 발생한 국어와 민남어 코드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어떤 발화형태로, 언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코드전환 되는가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진술”은 일상생활의 발화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어와 민남어 간의 코드전환 상황에서도 이 유형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역할전환”이란, 발화자가 국어와 민남어 코드를 발화자와 발화대상자, 또는 발화자와 제3자의 역할에 서로 다른 코드를 부여하고 마치 1인 2역의 복화술을 하는 것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역할전환” 형식의 코드전환 시, 국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 민남어 코드를 사용하여 서술하거나 실제 발화한 내용인 것처럼 묘사하고, 민진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어 코드로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질문·대답”의 상황에서는 “질문”, “두 사람 간의 질의응답”, “자문자답” 등의 코드전환 용례를 발견했다. 또한 “코드 동화”란, 앞의 발화자가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고 나서, 뒤의 발화자도 민남어 코드로 전환해서 계속 민남어 코드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가리킨다. 기타 유형에서 “비유”는 직유와 은유의 상황에

서 민남어로 코드 전환되는 경우이며, 이 밖에도 “과장”, “발화사”, “민남어 속담”, “국어 신조어” 등을 사용하는 용례가 발견하였다. 사실 대만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국어와 민남어 사이의 코드전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본 코드는 국어 코드이고, 상황에 따라서 민남어 코드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앞에서 열거한 “진술”, “역할전환”, “질문·대답”, “역할전환”, “비유”, “기타” 형식 가운데, 대만의 국어와 민남어 간 코드전환으로서 가장 큰 특징은, 민남어 코드의 고유한 색채를 드러내면서 국어와 민남어 코드가 수시로 변환될 수 있는 “역할전환”, “코드 동화”, “민남어 속담” 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코드전환 형식 유형	출현횟수
진술	129
역할전환	91
질문·대답	24(질문18/대답6)
코드 동화	29
비유	23
과장	4
발화사	3
민남어 속담	3
국어 신조어	1
합계	307

대만의 시사토론 프로그램(<鄭知道了>)에 나타난 다양한 코드전환 형식의 출현 회수 통계를 보면, “진술”이 129회로 가장 많았고, “역할전환”이 91회로 두 번째로 많았다. “코드 동화”, “질문·대답”, “비유”의 출현횟수도 20회를 넘었다. 이 가운데 “진술”이 가장 많은 이유는 일반적인 발화에서 “진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할전환”의 출현 회수가 91회에 달하는 것은 다소 특이하게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 친민진당 성향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대부분 민남어 코드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발화자이므로 국어-민남어 간의 역할전환을 사용하여 발화에 생동감을 불러일으켜서 시청자에게 설득력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역할전환”이라는 코드전환 형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參考文獻

- 강현석 외 9명,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서울: 글로벌콘텐츠, 2014.
- 염재웅,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양안의 표준어사용 비교연구」, 第71輯, 『中國人文科學』, 2019: 103-134.
- 염재웅, 「대만의 國語와 閩南語 코드전환 의도 연구」, 第77輯, 『中國學論叢』, 2023: 45-70.
- 陳美如, 『臺灣語言教育政策之回顧與展望』, 臺北: 復文出版社, 1998.
- 黃錦鉉·張正男·張孝裕·張素貞·黃永定·葉德明, 『國音學』, 臺北: 正中書局, 1986.
- 何萬順, 「語言與族群認同: 從台灣外省族群的母語與台灣華語談起」, 臺北: 『LANGUAGE AND LINGUISTICS』 10.2. 2009: 375-419.
- 李婉婷, 『媒體對選舉新聞的報導偏差性分析——以民國八十三年臺北市長選舉為例』, 國立政治大學新聞研究所碩士論文.
- 盛治仁, 「電視談話性節目研究——來賓·議題結構及閱聽人特質分析」, 『新聞學研究』 第84卷, 2005: 163-204.
- 魏岫明, 『國語演變之研究』,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委員會, 1984.
- 許極燉, 『台灣語概論』, 臺北: 臺灣語文研究發展基金會, 1992.
- 薛晶晶, 「解讀『海角七號』中的語碼轉換」, 『洛陽理工學院報(社會科學報)』, 第24卷 第2期, 2009: 29-31.
- 游汝傑·鄒嘉彥, 『漢語與華人社會』,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1.
- 游汝傑·鄒嘉彥, 『社會語言學教程(第二版)』,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11.
- 鄭良偉, 『從國語看台語的發音』,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7.
- 鄭良偉, 『演變中的臺灣社會語文—多語社會及雙語教育』, 臺北: 自立晚報社文化出版社, 1990.
- 朱雲漢, 「2005年至2008年『選舉與民主化調查』四年期研究計畫(III): 2008年立法委員選舉面訪案」, 『行政院國家科學委員會補助專題研究計畫成果報告』, 2008: 58-78.
- Carol Myhers-Scotton, *Duelling Languages-Grammatical Structure in Codeswitch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3.A.

Carol Myers-Scotton, *Social Motivations for Codeswitching - Evidence from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3B.

Réne Appel & Pieter Muysken, *Language Contact and Bilingualism*, Amsterdam,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5. (김남국 역, 『언어접촉과 2개 언어상용』,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8.)

Abstract

Study on the Types of Code Switching Formats

— Focusing on Code-Switching Cases Between Mandarin Chinese and South Min Dialect
in Current Affairs Discussion Programs in Taiwan

Yum, Jae Ung

In Taiwan, the Mandarin Chinese code and the South Min Dialect code are commonly used in all fields. The two codes are frequently switched and used interchangeably in a method called code switching.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types of code switching that occurred in situations where the Mandarin Chinese and South Min Dialect codes were switched in Taiwanese current affairs discussion programs. “Statement” i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m of speech in everyday life and has the highest frequency of occurrence. “Role switching” is when a speaker uses code switching as if he or she is performing a double role. In the case of code switching in the form of “role switching,” there are cases where a South Min Dialect code is used to describe a politician belonging to the Kuomintang, and a Mandarin Chinese code is used to describe a politician belonging to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In the “question and answer” situation, there are examples of code switching such as “question,” “question and answer,” and “question and answer.” “Code assimilation” refers to a situation where the preceding speaker switches to the South Min code, and the succeeding speaker also switches to the South Min code and continues the conversation in the South Min code. In other types, “metaphor” refers to a case where code-switching occurs in a situation of metaphor and simile, and in addition, examples of “exaggeration”, “speaker”, “South Min proverb”, and “Mandarin Chinese code neologism” were found. Looking at statistics on the number of appearances of various code-switching forms in Taiwan’s current affairs discussion program, “statement” was the most frequent at 129 times, followed by “role switching” at 91 times, the second most. “Code assimilation”, “question-answer”, and

“metaphor” also appeared more than 20 times. The reason why “statement” is the most frequent among these can be seen as being because “statement” is the most frequently used in general speech. The fact that “role switching” appears 91 times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make it more vivid with different codes, making it easier for listeners to understand.

Key words : Code switching format, Taiwanese current affairs discussion program, Role switching, Mandarin Chinese, South Min dialect

투 고 일 : 2025. 4. 10. / 심 사 일 : 2025. 4. 15.~ 2025. 5. 15. / 게재확정일 : 2025. 5. 20.